

SK케미칼, 1Q 순이익 57% 감소!

원료가격 상승분 제품에 반영 못해 ... SK글로벌 사태에 정정공시까지

SK의 1/4분기 당기순이익이 SK글로벌 사태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2003년 1/4분기 매출액 4조1044억원, 영업이익 2761억원, 경상이익 679억원, 당기순이익 49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매출액은 2002년 1/4분기 대비 28.6%, 영업이익은 273.7% 증가한 것이지만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1% 감소했다.

SK는 미국-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판매 호조로 1/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SK글로벌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와 해외법인 등의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에 따라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K는 2002년 경상이익이 3907억원에서 163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968억원에서 136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정정공시했다.

SK글로벌 103억원, SK해운 1589억원, SKC 583억원 등 자회사 지분에 대한 총 2275억원의 지분법 손실액을 2002년 실적에 반영하면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SK케미칼은 1/4분기 매출액이 21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업이익은 101억원, 순이익은 22억원을 각각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3%, 5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상승 폭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Chemical Journal 2003/05/19>